

LCD패널 가격 폭락세 끝이 없다!

2010년 초의 50% 수준으로 최저수준 형성 ... 삼성·LG 수익성 추락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이 2010년 초의 50% 수준에 근접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애태우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이미 원가 이하로 팔리고 있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LCD 패널 9월 전반기 가격은 PC 모니터용, 노트북용, TV용, 모바일폰용, 태블릿PC용 모두 하락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주력하고 있는 TV용은 북미·서유럽 시장의 TV 판매 부진과 공급과잉이 겹쳐 앞으로도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40-42인치 HD TV용은 9월 전반기 개당 215달러로 8월 후반기보다 4달러(2%)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가격을 형성했다.

HD TV용은 2010년 1-4월 340달러에 달했으나 8월 말 295달러로 300달러 벽이 무너졌고 이후에도 계속 하락해 2011년 4월 말 232달러까지 떨어진 후 5월 237달러로 반등한 후 3개월간 보합세를 형성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2010년 초보다 125달러(36.8%) 급락했고 1개월 전(237달러)과 비교해도 22달러(9.3%) 떨어진 것으로 200달러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40-42인치 LED(발광다이오드) TV용 패널도 4월 말 317달러까지 떨어진 후 5월 초 320달러로 반등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7월 후반기 315달러로 주저앉더니 8월 전반기 310달러, 8월 후반기 294달러로 300달러 선이 깨진데 이어 9월 전반기 287달러로 2% 추가 하락했다.

시장 최저치로 2010년 초 500달러와 비교하면 213달러(42.6%) 빠지면서 반토막 수준에 근접했다.

46인치 TV용 패널은 2010년 초 447달러에서 계속 떨어져 8월 말 299달러로 300달러 벽이 무너진데 이어 9월 초 296달러로 1% 추가 하락했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PC 모니터용도 유럽시장 등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20인치용이 8월 말 64달러에서 9월 초 62달러로 3% 하락했다.

노트북용도 최고 5% 떨어졌고, 모바일폰용은 2인치용이 5월 말 5.05달러에서 6월 말 5달러를 형성한 후 7월 말 4.99달러, 8월 말 4.98달러, 9월 초 4.97달러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7>